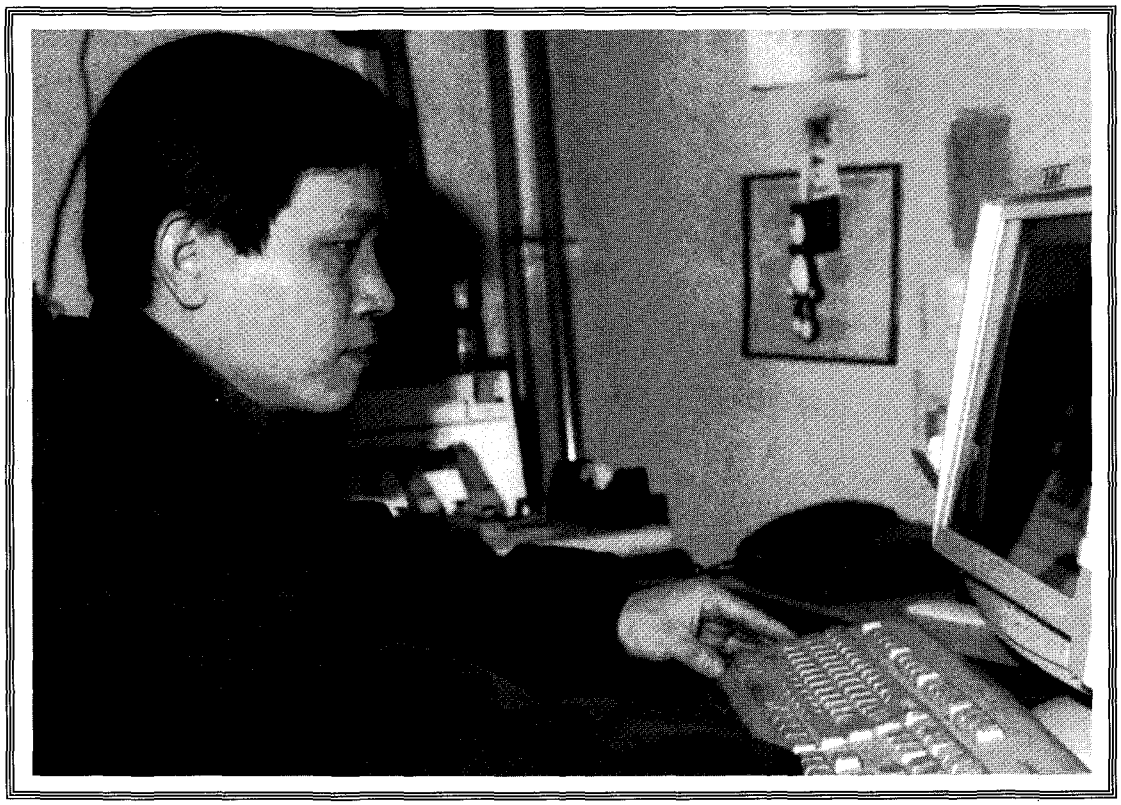
이달에 만난 환경인

이화염직 환경안전과 김태균 과장



환경사범단속에 단골로 올라오는 염색업체.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염색업체라면 무조건 환경오염의 근원지로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는 염색업체의 영세성과 염색폐수의 특성상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정확한 시스템으로 어느 분야 못지 않게 철저한 환경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이화염직. 이곳의 환경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김태균 과장을 만나 그가 만들어 가는 환경관리 비법과 비전을 들어보았다.

어디에 몸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 나가는지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는 성실한 환경인일 뿐이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한 겨울에 그를 만났다. [편집자 주]

『기업환경의 리더자는 환경관리인』

이화염직 환경안전과 김태균 과장

▶바쁘신데 인터뷰를 허락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올 한해 기업 환경관리인은 어떤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까요?

어떤 분야에서든 환경관리인의 역할은 같습니다. 먼저 자기 전공분야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잡지며 인터넷을 통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환경관리에 필요한 요건, 즉 기록하기 위해 엑셀을 배운다든가 컴퓨터의 전반적인 기능습득으로 환경관리에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기타 선진국의 사례를 공부하기 위해 한 두개의 외국어 실력배양도 간과해서는 안되죠.

공부를 하고 관련분야 정보를 수집하면 시행착오가 적고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염색분야는 영세하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관리인들이 잘 하면 경영자마인드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환경인식의 높아졌습니다. 기업환경의 리더자는 환경관리인입니다.

▶이화염직에서 10년 넘게 환경관리를 담당하셨는데 이곳의 환경관리현황은 어떤가요?

IMF 이후 공무팀과 환경팀을 통합하고 현 환경은 2명이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규준수차원에 급급했으나 지금은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반 동안 12억원을 투자, 최고의 폐수관련 방지시설을 도입했으며, LNG 공정을 도입, 환경친화적인 공정개선으로 지금은 어느 업종 못지 않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차원에서는 방지시설 투자보다는 청정연료로 가는 것이 환경보전의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각 공정별 환경관리에 좀더 치중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투명한 환경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염색폐수처리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섬유염색은 다양한 화학물질 사용으로 난분해성 유기물질이 발생됩니다. 색도는 미생물처리방법으로 흡착-침강-미생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폐수는 화학적처리와 생물학적처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의 정착으로 성상의 분석이 어려우며, 계절별 종류별 다양해 자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이용합니다. 데이터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수가공분야가 많이 발달해 더욱 다양한 폐수가 나오는데 기본에 충실하면 이 또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체 테스트를 거쳐 처리하고 있습니다.

▶염색업체 환경관리담당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염색업체들은 영세합니다. 업종의 특성상 소규모의 참여업체가 많기 때문인데 이제까지 환경관리는 법적규제를 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인들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법규숙지하면서 업체의 환경관리를 리더해 나가길 바랍니다. 앞서가야 된다는 것이죠. 각 업체별 폐수특성이 틀리고 경제적 여건이 틀려 업체별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폐수발생 공정을 연구하고 경제적인 처리방법을 공부하면 충분히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인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어둡고 약자의 입장보다 양지쪽으로 나오려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배출시설이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양을 분석, 필요한 정보를 경영진에게 보고, 꼭 필요한 투자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을 비판하기보다는 만들어 가려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한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기록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관리인이 24시간 상주할 수는 없는 일이니 무엇보다 자료화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로 관리를 하면 기타의 시간은 기술교육 및 법규해설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 실제 자기개발에 유리하죠.

저는 산업대학을 편입해 올 2월에 졸업합니다. 모든 공정의 시스템화는 바로 이러한 자기개발의 시간을 가져다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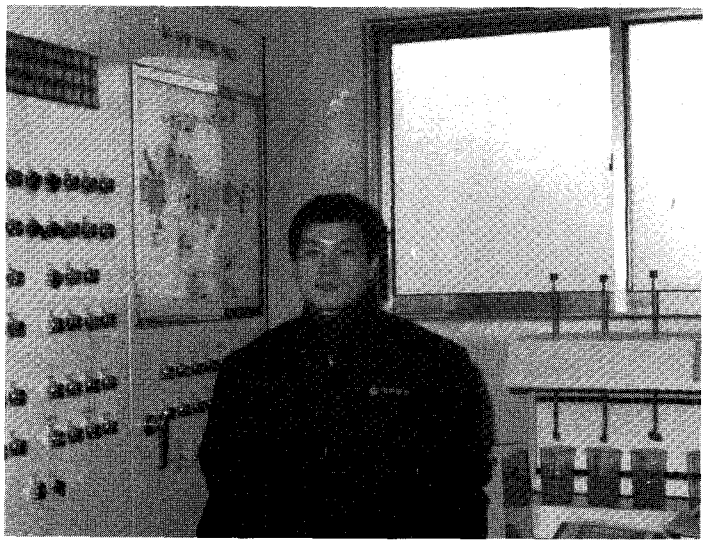
이달에 만난 환경인

이화염직 환경안전과 김태균 과장

노력하는 만큼 기회가 주어지죠.

▶철저한 관리를 해오고 계신데 환경을 관리하면서 애로점은 무엇인지요?

요즘은 경영진의 마인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익과 환경이 함께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아직은 많은 기대를 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다만 관리인들의 노력으로 필요성을 인식시키면 많은 지원을 하죠. 2중 3중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객관적인 기술자료의 부족이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환경시설업체, 수요업체 등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애로점은 모든 회원들이 느낄 것으로 보여 저희 경기북부협의회는 제일먼저 '기술지원단'을 구축, 지난해에는 70업체에 달하는 영세업체에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양보다 질적인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50개업체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경관리인들의 경력자는 자기가 가진 정보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이런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 환경개선효과를 가져왔으면 합니다.

▶경기북부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신데 협의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기북부협의회는 2500여개사에 달하는 업체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대부분 환경개념이 희박한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고 각 업종별 환경관리를 표준화해 홈페이지(www.nkchem.kr.to)에 게재,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까지는 위탁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전문 홈페이지 관리센터에 맡겨 좀더 회원들에게 다가가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환경관리인은 어떻게 되셨나요?

전공이 기계공학인데도 불구하고 첫 직장에서 환경관리 대기분야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분야로 발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미개척분야여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만든 만큼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할까요. 계획한 것이 이뤄지니 자부심이 생기더군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슬럼프는 언제였나요?

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환경관리분야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강했기에 교육 및 배움의 기회가 주어질 때 성실히 임해 많은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보고 느끼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입증해 보일 때 인정받는 환경관리인이 되더군요.

슬럼프라기보다는 성취감이 컸습니다. 내가 완벽해질 때 가장 편안한 시기가 오더군요.

▶자기관리가 철저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나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쉼없이 달려왔다고 할까요.

이달에 만난 환경인

이화염직 환경안전과 김태균 과장

지금은 컴퓨터 분야의 고부가가치를 인정하고 동영상 및 포토샵 등 다양한 기능을 배우고 있습니다. 올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시간이 남을 것 같아 지금은 그쪽으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좌우명은 무엇인지요?

'정진'입니다. 정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요즘 조금 한가한데 한가하면 조바심이 납니다.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임원이신데 연합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신다면?

회관건립이 우선시 되었으면 합니다. 이로 인해 관리인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기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를 위해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안 없는 논쟁보다 실질적인 회원들을 위한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보를 통해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좀더 회원들이 참여하는 회보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더 준비해 염색폐수분야의 기술컨설팅을 해보고 싶습니다. 배우고 익힌 지식을 영세한 사업장에 이전해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

김태균 과장은 굉장히 성실하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염색업체 중 최고의 환경관리인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비효율적인 고비용의 투자보다 경제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시설운영으로 이화염직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그는 기술지원으로 지역환경보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조용한 성격이지만 협의회 일이든 회사 일이든 환경관련 일은 주저 없이 적극적이다.

이달 서울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하는 그는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기술로 영세한 사업장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컨설팅업무를 하고 싶어한다. 물론 아직은 부족하지만 염색업체의 고질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바른 환경관리인의 자세가 돋보였다.

올 한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그의 건투를 빈다.